부탄 ESG 포럼에서 본 한국불교의 가치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ESG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월 9~10일 부탄에서 열린 '제2회 부탄 국제 ESG 포럼'에 참가한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는 현장에서 살핀 ESG 담론의 확장 가능성과 한국불교에 주는 함의를 담은 기고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1월 9~10일 부탄에서 열린 '제2회 부탄 국제 ESG 포럼'은 부탄의 ESG 구조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한국불교의 철학과 유산 가치를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사진은 원걸 스님이 '불교 생태 철학과 한국불교 환경적 활동'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는 모습.

'제2회 부탄 국제 ESG 포럼'
더 나은 사회 위한 공동체 담론

불교의 가치, ESG 요소와 직결
'공공 가치와 자산'으로 재해석

기후위기·정서 치유·신뢰 회복 등
문제 해결 위해 불교 珥 재조명해야



'제2회 부탄 국제 ESG 포럼' 참가자들의 기념 촬영. 사진 제공=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부탄의 ESG 확장 시도

한국부탄우호협회와 부탄신탁기금(Bhutan Trust Fund, BTF) 등이 공동주최한 '제2회 부탄 국제 ESG 포럼'은 한국·부탄 정부 관계자, 불교계 대표, 학계·ESG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탄 팀푸 왕립대학교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희동 연세대 특임교수가 '기후변화 영향과 부탄의 자연재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원걸 스님(조계종 국제교류위원)이 '불교 생태 철학과 한국불교 환경적 활동'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와 함께 '부탄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기업 탄소중립 정책 대응과 경영 전략'을 주제로 세션 발표도 진행됐다.

경제 규모나 군사력보다 행복·환경·문화 가치를 국가의 정책 구심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독특한 위상을 확보한 부탄(Kingdom of Bhutan)에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2회 부탄 국제 ESG 포럼'에 참석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부탄은 히말라야 동부에 자리한 인구 약 78만 명 규모의 작은 나라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을 헌법과 정책 전반에 제도화한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국가다. 또한 부탄은 불교적 세계관과 히말라야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이 결합된 나라,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로 인한 사회 해체와 환경 파괴를 예방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취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포럼의 주제인 ESG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 구조(Governance)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ESG는 조직의 '착한 경영'만이 아니라, 미래 공공 편익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비재무적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공동체의 노력을 대표하는 담론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은 규모와 내용, 운영 등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ESG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부탄과 같은 작은 국가의 경험이 국제 ESG 담론에서 중요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또한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개념과 연계한 ESG 구조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한국불교의 철학과 유산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포럼에서 부탄 전문가들이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ESG가 더 이상 조직 관리와 평가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으며, 인간과 사회·자연·문화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삶의 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분절된 정책, 고성장 중시, 정부 주도, 단기 성과 중심의 대응은 한계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교에 담긴 ESG 가치

불교와 ESG의 관계는 연계나 협력이라는 지엽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불교는 ESG 개념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생활 체계로 다뤄온 문명적 전통이기 때문이다.

사찰과 그 주변 자연은 문화경관일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저장고이자 탄소흡수은행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ESG의 '환경(E)'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사찰은 탄소 흡수, 생태 연결성 유지, 기후 적응 기능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불교의 절제와 중도 사상은 과잉 소비와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는 윤리적 기준으로 작동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환경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묵묵히 해왔다.

불교가 지닌 사회적 가치는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최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대중의 정서적 불안 등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상, 수행, 자연환경이 결합한 사찰의 정서적·심리적 치유 기능은 현대인들의 희소한 정서 회복 인프라인 동시에 사람과 경제의 흐름을 견인하는 중요한 선순환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불교의 가치와 기능은 ESG의 '사회(S)' 요소와 직결된다. 불교 공동체가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 돌봄과 연대를 실천해 온 긴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 사회적 자본 가치 구조가 취약해진 우리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SG의 '지배구조(G)'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불교의 수행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책임성과 신뢰성을 중시해 왔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 성과에 집착하는 현대 조직 운영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합의와 숙의, 절제된 권한 행사는 ESG가 지향하는 투명성 및 책임성과 깊이 연결된다. 종교적 권위와 위엄이 아닌, 신뢰와 믿음의 전통은 사회의 공공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 준다.

'불교 ESG' 구조화 필요

이처럼 한국불교의 철학과 유산은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분절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의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인구 감소, 기후위기, 정서적 불안정과 사회 불균형 등의 위기가 엄습하는 이 시대에 불교의 철학과 유산 가치는 현대적인 '공공 가치와 자산'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불교의 본질적 가치를 대중과 사회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구조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가 전통적으로 지녀 온 ESG 개념을 현대사회의 언어로 다시 묻는 '불교 ESG의 구조화'를 의미한다.

국민 행복 견인할 '사회적 자산'

관건은 한국불교가 지닌 ESG적 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회적 언어로 재정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불교의 환경·사회·지배구조적 가치는 이미 오랜 시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작동해 왔지만, 이를 체계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 발전 전략의 일부로 연결하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는 불교를 단순한 신앙의 영역이나 문화유산 보존의 대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회복, 정서 치유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동시에 떠받칠 수 있는 전략적 공공 자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불교의 생태 윤리와 공동체 정신, 책임 있는 운영 전통은 단기 성과에 매몰된 성장 논리를 넘어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한국불교의 ESG적 가치를 사회가 공유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 이는 종교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민 행복을 함께 견인하는 핵심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한국불교의 가치를 이 시대의 언어와 구조 속에서 정확히 재배치하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ESG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연결의 틀이 될 수 있다.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
(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